



미 증시, 민간 고용 호조 속 금리 상승 등으로 혼조세

미국 증시 리뷰

4 일(목) 미국 증시는 최근 단기 하락에 따른 기술적 매수세 유입에도 12 월 민간고용 호조에 따른 10 년물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애플(-2.6%), 알파벳(-1.8%) 등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을 중심으로 약세 압력을 받으면서 혼조세로 마감(다우 +0.03%, S&P500 -0.3%, 나스닥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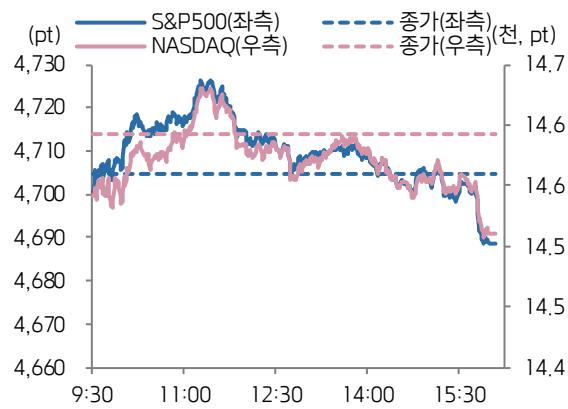
미국의 12 월 ADP 민간고용은 16.4 만건으로 전월(10.1 만건) 및 컨센(11.5 만건)을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 여가 및 접객업(5.9 만), 건설(2.4 만)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했다는 점이 전반적인 민간고용 증가세를 견인. 반면, 임금상승률은 5.4%로 2021년 10 월 이후 최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임금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

12 월 미국 기업들의 감원 계획은 3.4 만명으로 전월 4.5 만명이 비해 약 20% 이상 감소. 집계 측은 기업들이 2024년 들어서 비용절감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인력 감축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 한편,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도 20.2 만건으로 전주(22.0 만건) 및 컨센(21.6 만건)을 하회.

12 월 S&P 의 미국 제조업 PMI 는 51.4로 전월(50.8) 및 컨센(51.3)을 상회하는 호조세를 기록. 신규주문, 고용 등 주요 항목들이 대체로 개선세를 보였다는 점이 금번 PMI 호조의 배경. 집계 측은 최근 금융환경이 완화적으로 변해가고 연내 금리인하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서비스업황 심리에 지지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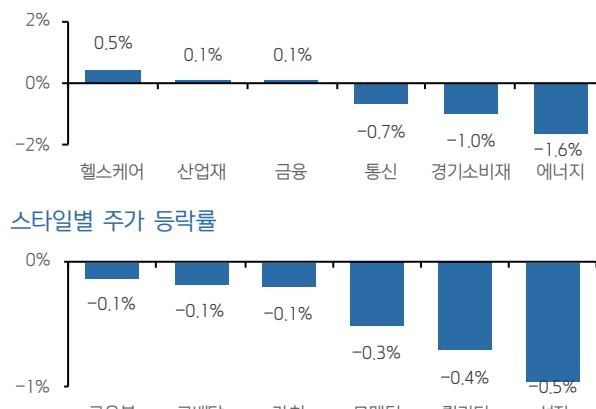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태영건설 등 부동산 PF 부실 문제와 관련해 원칙에 입각한 질서있는 구조조정과 연착륙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라는 입장을 표명. 동시에 건설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이복현 금융위원장도 원칙에 입각한 질서있는 구조조정이 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방침이라고 언급.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신청시 약속한 최소한의 자구책마저도 시작 직후부터 지키지 않고 있어 당국은 우려와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587.02	-0.78%	USD/KRW	1,310.15	+0.39%
코스피 200	348.07	-0.89%	달러 지수	102.41	-0.08%
코스닥	866.25	-0.61%	EUR/USD	1.09	+0.03%
코스닥 150	1,371.76	-0.87%	USD/CNH	7.18	+0%
S&P500	4,688.68	-0.34%	USD/JPY	144.58	-0.03%
NASDAQ	14,510.30	-0.56%	채권시장		
다우	37,440.34	+0.03%	국고채 3년	3.224	-5.1bp
VIX	14.13	+0.64%	국고채 10년	3.285	-5bp
러셀 2000	1,957.73	-0.08%	미국 국채 2년	4.385	+5.4bp
필라. 반도체	3,908.85	-0.82%	미국 국채 10년	3.999	+8.3bp
다우 운송	15,498.17	-0.04%	미국 국채 30년	4.152	+8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474.01	+0.58%	WTI	72.37	-0.45%
MSCI 전세계 지수	714.48	-0.98%	브렌트유	77.65	-0.77%
MSCI DM 지수	3,115.68	-0.95%	금	2051.1	+0.41%
MSCI EM 지수	1,003.13	-1.3%	은	23.21	+0.21%
MSCI 한국 ETF	62.72	-0.99%	구리	384.4	-0.4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99%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33%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07%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11.9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FOMC 의사록 공개 이후 연준과 시장의 기대 간 괴리 축소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정
2. 테슬라, 애플 등 전기차, 반도체주 부진으로 국내 밸류체인 관련주 수급 이탈 유발 가능성
3. 장중 미 10년물 국채 금리 움직임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금일 미국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ADP 민간고용,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모두 호조를 보이며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을 축소. 특히 민간고용의 경우 레저, 건설, 금융 등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임금 상승 우려를 높임.

12 월까지는 금리인하 및 경기연착륙 전망 강화되며 경제지표 호조는 증시에 호재, 경제지표 부진은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는 국면. 그러나 금리인하 기대감이 일부 되돌려졌기 때문에 이번 고용보고서 결과는 예상치를 하회하면 호재, 크게 상회하면 물가 상승, 금리 추가인상 우려를 부추길 것으로 판단. (현재 신규고용 컨센서스 15.8 만건, 전월 19.9 만건). 12 월 CPI는 기저효과로 인해 YOY 증가율은 재상승(CPI 컨센서스 3.3%, 전월 3.1%). 기저가 되는 2022년 12 월 CPI 의 경우 당시 휘발유 전월 10.8%에서 -0.9%로 감소 전환, 중고차 -3.3%에서 -8.8%로 하락폭 확대한 점이 물가 둔화에 기여. 올해의 경우 유가는 12 월 초 68 달러 수준에서 73 달러대까지 약 7% 급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가 물가 재상승 요인이 될 수 있음.

다만 물가 재상승으로 인한 추가 금리인상 우려는 과도. 1) 작년 CPI 의 또 다른 상승 요인이었던 주거비는 하락하며 유가 변동성을 상쇄, 2) 근원 CPI 에 6 개월 선행하는 JOLTS 구인건수 하락 추세 유효, 3) ADP 민간고용 호조에도 평균 임금상승률은 전월 대비 둔화(전월 5.6% → 5.4%) 등 재취업이 어려운 환경임을 시사. 11 월 5.1% 저점 이후 소폭 상승한 서비스 CPI 역시 시차를 두고 하락할 것.

연준과 시장의 기대 간 괴리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전일 모건스탠리 역시 연준의 첫 금리인하가 6 월 이전에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며 3 월에는 동결 전망. 고용지표, 물가 전망 경로에서 확인되는 5~6 월 금리인하 가능성과, CPI 발표 이후 매크로 이벤트 부재로 인해 기업실적으로 초점이 이동할 것임을 감안 시 조정 시 매수 전략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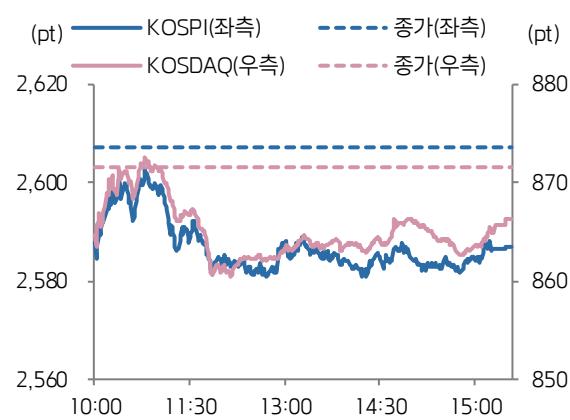
4 일(목) 국내증시는 FOMC 의사록 공개 이후 금리인하 기대감 약화로 인한 아시아 증시 약세에 동조된 가운데 기관의 차익실현이 하방 압력을 가하며 하락 마감. (KOSPI -0.78%, KOSDAQ -0.61%)

금일에는 낙폭과대 인식이 유효한 가운데, 10 년물 금리 4%대 도달, 미 기술주 조정으로 관망세 짙어지며 제한적인 움직임 보일 것으로 예상.

2024 년 YTD 수익률 코스피 -2.57%, 코스닥 -0.04%로 하락 전환 (S&P500 -1.7%, 나스닥 -3.3%). 연말 기대감을 모았던 산타랠리의 경우 12 월 21 일 ~ 1 월 3 일 수익률 코스피 0.28%, 코스닥 1.41% (S&P500 -0.9%, 나스닥 -2.5%). 일반적으로 1 월에는 개인들의 연말 대주주 양도세 물량 차익실현 이후 되돌림 나타나며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상승 강도가 더 강하다는 계절성을 따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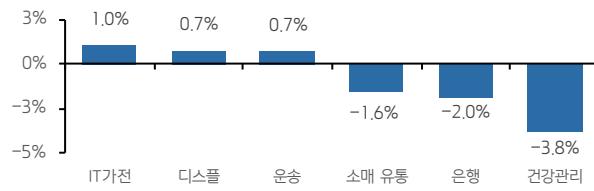
국내는 현 정부의 금투세 폐지 추진, 의사회 의무 대상에 주주이익 포함 등 상법 개정, 공매도 금지 연장 이슈 존재. 현실화되기까지는 아직 시차가 있으나,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및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측면에서 작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기조. 공매도 관련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겠다는 언급은 이와 상충되는 부분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 공매도 전산화 추진이 목적이며, 단기적으로도 10 월 이후 급등한 운수창고, 전기전자, 의료정밀 및 의약품 업종 포함 증시에는 우호적인 수급 여건 환경을 조성하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 미 증시 조정에도 헬스케어 섹터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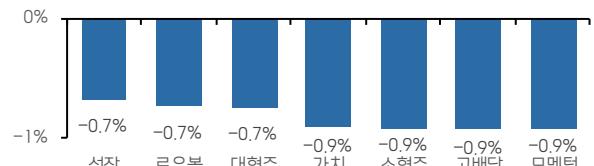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